

#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11월 20일 착공

수십년 방치 옛 전방·일신방직부지 재탄생... 도심변화 신호탄  
광주시 '신속·공정·투명' 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8개월 단축  
공공기여금 협약... 소상공인 간담회 등 소통·상생방안 마련도  
착공식, 시민참여형으로... 주최측과 협력 교통·안전관리 만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착공식이 오는 20일 열린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 착공은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도심 부지가 재탄생하는 광주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착공식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주관하며,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 콘셉트와 비전을 소개하고 기념 퍼포먼스 등도 선보인다.

특히 착공식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행사로 열린다. 광주시는 현대백화점과 협력해 행사 당일 교통 안내와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광주에 처음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955㎡,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큰 규모로,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 정식 개점을 목표로 한다.

'더현대 광주'는 광주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로,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재탄생함으로써 도심 전역에 활력과 변화의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기반으로 글로벌 쇼핑·문화 허브도시로 도약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공정·투명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제공했



다. 광주시 담당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워크숍 통합행정 지원을 추진, 통상 19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행정절차를 8개월 단축해 11개월 만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광주시는 특히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20여차례 간담회를 거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기업, 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

로 복합쇼핑몰-지역상권 간 상생방안 논의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7월30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이행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는 현물(2899억원) 공공기여 중 도로 등 주요 공공기반시설을 복합쇼핑몰 개점 이전까지 대부분 완료하기로 했으며, 현금 3000억원은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5년에 걸쳐 광주시에 분납한다. /신영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11월 17일 개최한 '소재·부품, 에너지 및 신산업 분야 전문가 그룹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광양경자청, 미래 핵심산업 육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월 17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년 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광양만권의 핵심 전략산업 동향과 정부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수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산업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짚고, 광양만권이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소재·부품, 에너지, 수소 산업 분야의 주요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와 잠재력,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이 국가산단, 항

만, 철도 등 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벨트로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재·부품 산업의 공급망 강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종근 청장은 "광양만권은 철강·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과 이차전지·수소 등 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별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 농어촌공 전남, 전국 최대 스마트팜 메카로 도약

### 전남본부, 스마트농업 규모화·집적화·다양화로 미래농업 견인

심 의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 농정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농촌 디지털화, 청년농 지원, 탄소중립형 농업 모델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고흥을 중심으로 장성, 신안, 영암, 강진 등 7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451억원의 스마트농업 사업을 추진,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전국 전체 스마트팜 보

급 면적의 약 32%를 차지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내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첨단농기계를 활용한 나주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54.3ha)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4ha)는 금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고층군에 인계를 앞두고 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외에도 △ 고흥·신안 스마트팜예단지기반조성(107억원, 16.6ha), △ 고흥 스마트축산 ICT(125억원, 19.1ha) △ 장성 스마트농업 육성단지(391억원, 12.9ha), △ 신안·영암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448억원,

15.4ha) △ 강진·영암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사업(18억원, 0.7ha)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농업 메카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청년, 신규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ICT 환경제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 실현과 탄소중립형 디지털 농업 기반도 함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성장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과 상생모형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농업 발전과 육성 견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한 자원 부족 및 식량 공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세는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세계 각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식량주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데이터 기반 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은 종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기후 리스크 증가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농 중

광주와 전남은 올해 3분기 주요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17일 국가데이터터치 호남동계청이 발표한 3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광공업 분야에서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화학제품 생산 감소로 같은 기간 광공업이 5.4% 줄었고, 서비스업

"뚜렷한 온도차"... 광주·전남, 3분기 주요 경제지표 '희비'

### 광주 생산·건설·수출·고용 '맑음'... 전남은 '흐림'

도 부동산업 등의 부진으로 0.8% 감소했다.

건설수주 역시 엇갈렸다. 광주는 토목공사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었지만, 전남은 토목·건축 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25.9% 감소했다. 수출에

서도 광주는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늘어 23.5% 증가한 반면, 전남은 선박 등의 수출이 줄어 1.7% 감소했다.

고용에서 광주는 60세 이상과 40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p 증가했으나, 전남은 30세 이상에서 줄어

0.5%p 하락했다.

소매판매만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광주는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 0.1% 감소했고, 전남은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가 늘어 0.2% 증가했다. 인구는 광주와 전남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각각 1657명, 1499명 순유출됐다.

광주는 20대 654명, 30대 402명, 전남은 20대 1770명, 10대 397명이 빠져나갔다. /신종팔 기자

## 전남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자립 발판 제공

### 순천시 일자리박람회... 2천여명 참여·70개 기관 동참

전라남도는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장애인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꿈과 희망을 실현토록 하기 위한 '2025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일자리 록! 내 일(My Job!) 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와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광현 순천부시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장애인 구직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열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성공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

린 이번 행사는 구직 장애인의 참여 열기가 한층 높았다. 사전 온라인 접수자 150명을 비롯해 현장 면접과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장애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70개 참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5개 기관은 현장 채용관, 45개 기관은 간접채용관을 운영하며 제조업, 세탁업, 소독·방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채용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재)전남도문화재단, (재)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남도 출연기관도 함께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